순익 많이 낸 기업, 주가 상승률 쑥쑥

로케트전기 흑자전환 성공… 올 주가 206%나 급등

지역상장사 등락요인 순이익 - 영업이익 - 매출 順

순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 주가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지역 14개사(12월 결산법인)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과 주가등락을 분석한 결과 주가 등락은 순이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실적에 따라 주가가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순이익>영업이익>매출액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 상장사들의 주가는 올 들어 9월까지 평균 46.41%가 올라 코스피(유가증권시장) 평균 상승률(44.1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실적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순이익이 증가한 9개사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61.82%로 시장 수익률 대비 +17.70%포인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영업이익이 늘어난 8개사의 평균 주가 상승률도 51.48%로 시장 수익률에 비해 7.36%포인트 더 수익이 났다.

반면 매출액이 늘어난 6개사의 평균 주가는 39.47% 올라 시장 수익률에 비해 4.65%포인트 덜 올랐다.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중에서도 순이익이 감소한 기업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18.68%로 시장 수익률 대비 -25.44%로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 영업이익이 줄어든 6개사의 주가도 39.65% 오르는데 그쳐 시장 수익률에 비해 4.47%포인트 낮았다.

개별 기업별로는 로케트전기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5억6천800만원과 56억4천만원이 늘어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206.49%나 급등해 상승률 1위 기업에 올랐다.

이밖에 순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디에스알제강(96.72%), 대유신소재(82.38%), 대유디엠씨(80.56%), KPX화인케미칼(52.70%) 등 4개사의 주가가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광주·전남 상장사 실적과 주가등락

(단위: 억원, %)

종목명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주가등락률
광주신세계	1,406	293	249	31.34
금호산업	18,383	1,269	-1,006	-11.24
금호타이어	14,353	-1,614	-3,365	18.49
대유디엠씨	647	-3	8	80.56
대유신소재	987	39	35	82.38
동아에스텍	558	49	54	12.71
디에스알제강	950	1,55	138	96.72
로케트전기	411	11	10	206.49
보해양조	1,015	58	48	14.62
부국철강	1,941	48	47	35.39
셀런	965	19	-51	7.11
조선내화	2,558	99	179	-21.17
화천기공	670	6	50	43.64
KPX화인케미칼	2,280	289	203	52.70
계 (14개사)				46.41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실적은 올 3분기까지 누적수치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김정원소장은 "주가는 기업 실적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결국 어떤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가가 주가를 받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아파트 관리비 표준화 '잰걸음'

광주시, 청소비 등 6개항목 정보망 구축 공개

광주시가 추진해온 아파트 관리비 부과 표준화 사업과 공동주택 관리 정보망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가 한층 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3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hmais.net)에 공개했다. 시는 또 기존 게시판이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온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관리현황은 광주시공동주택관리정보망(www.gamis.or.kr)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회계를 모르는 일반주민들이 쉽게 관리비 명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으며, 관리비 증감 사유와 항목별 ㎡당 산출명세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 전국 모든 아파트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관리비 부과 항목이나 산정 방식이 들쭉날쭉해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초부터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과 함께 아파트 관리비 부과 표준화사업과 공동주택 관리 정보망 구축 사업을 해왔다.

한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조사결과, 광주시내 아파트 단지 438곳 중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곳은 83곳에 불과했다.

특히 청소비나 소독비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에 합산 부과하는 등 분석이 불가능한 아파트 단지도 80곳에 달했으며, 단지별로 1~5개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바뀐다

은행 자금조달금리로 변경 추진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현행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대신 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매월 집계·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와 제3의 기관이 산정하는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 등을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들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산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 자유화의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에 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현재 은행권의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 금리의 대표성 부족과 부작용을 지적했다. CD가 은행 자금조달원의 10%에 불과해 실제 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CD 금리와 시중금리의 괴리가 커지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한은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이용해 산정하는 게 가장 유력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산학연 협의회 발족 광주시의 친기업 정책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의회'가 23일 오후 4시 한국광기술원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전영복 산학연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회는 총괄위원회 산하에 자동차·전기·광통신 등 9개 산업별 협의체를 두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세관 '영광굴비' 명성 지켜냈다

가짜 추방 등 특산품 보호… 감사패 받아

광주세관이 '특산품 지킴이' 활동을 통한 영광굴비 상표 보호와 판매 증가에 노력한 공로로 영광굴비특품사업단으로부터 23일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세관은 지난 4월 중국산 굴비의 영광산 굴비 둔갑 판매로 실추된 명성 회복을 위해 영광굴비특품사업단과 민·관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광주세관은 영광굴비 등 남도특산품 관련 광고지를 제작, 배포하고 원산지 제도 홍보 및 거리 캠페인 실시 등 '우리 지역 특산품 제대로 알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 영광굴비특품사업단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 단속 등 '특산품 지킴이' 활동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판매량이 급감했던 올해 초 설 명절보다 지난 추석 굴비의 판매량이 14%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산품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건축시장도 친환경 자재 인기

에스디, 음이온 보드 시판

건축 시장에도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에스디는 최근 음이온이 방출되는 보드를 내놓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합판이나 석고보드에 비해 항균 방충 성능을 한층 높인데다, 난연 1등급 제품으로 섭씨 1천200도에서 견딜 수 있도록 제작돼 화재시 피해를 극소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시공시 절단이나 접착, 포장 등이 용이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

천장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인 아라텍스도 웰빙 트렌드에 발맞춘 친환경 자재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를 전혀 방출하지 않고 유해 물질인 석면 등도 포함돼 있지 않는 제품으로, 유해 전자파나 정전기 흡수 성능도 우수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문의 062-234-9500.

/김지을기자 dok2000@

光銀 KOSPI200 지수 연계

정기예금 한시 판매

광주은행은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KOSPI200 지수에 연계한 '더블찬스 정기예금 44호'를 한시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1년제로 KOSPI200 지수에 따라 최저 0%(원금보장)에서 최고 연 17.0%를 제공하고 만기 지수 결정일까지 기준 지수가 장중 1회라도 25% 초과 상승시 연 5.0%로 확정되는 '녹아웃 (Knock-Out)형'이다.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원부터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KOSPI200 지수에 따라 최저 원금보장부터 최고 17.0%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펀드 및 주식 직접 투자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